

PUBLICATION

## 소리 지르고 달려드는 책들

한미화 | 출판컬럼니스트

근래 들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미지가 담긴 책들은 감각의 복원을 외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비근하게 살필 수 있는 점이라면 책의 이미지가 풍부해졌다는 사실이며 이는 영상세대 독자를 위한 유인책이라는 표면적 이유와 디지털 감각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기도 하다. 디지털 시대의 책에서 이미지가 하는 역할은 삽화의 기능만이 아니라 텍스트와 같이, 혹은 따로 말하기를 시도하는 이미지일 것이다.

영국의 팝아티스트 데이비드 호크니가 『명화의 비밀』에서 뒤러, 한스 홀바인, 렘브란트, 얀 베르메르 등의 화가들이 카메라 옵스쿠라나 카메라 루시다 등의 광학 효과를 사용해 사진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정밀한 묘사를 했다는 주장으로 화제를 낳은 적이 있다.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뒀는지 화가 베르메르가 카메라 옵스쿠라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보여진다. 암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카메라 옵스쿠라란 원래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다. 방만큼이나 커다랗던 카메라 옵스쿠라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작아져 17세기에 이르면 휴대하고 다닐 만큼 작은 상자가 된다. 그러다가 감광 물질을 이용해 영상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자 드디어 사진기로 태어나게 된다.

진주 귀걸이 소녀를 그린 화가 베르메르가 생생한 묘사를 위해 사용했던 카메라 옵스쿠라는 오늘날의 사진기였던 것이다. 사진기는 탄생하자마자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초상사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까지 초상화란 부와 명예를 지닌 소수의 지배층이 향유할 수 있었던 특권 중에 특권이였다. 그런데 사진술이 발명되자 누구나 사진을 찍어 자신의 초상을 갖게 되었다. 초상사진을 갖는 일이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1861년 파리에만 약 3만 명의 직업사진가가 있었고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19세기란 참으로 오묘한 시공간이다. 사진의 탄생뿐 아니라 영화의 탄생 또한 19세기에 이뤄졌다.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상업 영화 『열차의 도착』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 1895년 이다. 19세기에 시작된 사진과 영화는 그로부터 불과 백여 년 남짓한 시간동안 문자문화와 회화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방만큼이나 크던 카메라 옵스쿠라가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디지털 사진기로 거듭났음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감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변한 대중의 감각은 다시 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미지적인 너무나 이미지적인

현상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촬영법을 다룬 책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02년 출간된 윤광준의 『잘 찍은 사진 한 장』을 시작으로 '사진 잘 찍는 법'에 관한 책은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출간되고 있다. 대중의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한 관심은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의 보편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꾸미기 열풍이 여기게 더해졌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른 한 편으로는 편집디자인자들의 전유물이거나 다름 없었던 포토샵 다루는 실무 매뉴얼이 대중서로 탈바꿈했다.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고 웹에 올리다보니 사진을 수정하거나 합성하는 일 또한 대중의 오락거리가 된 지 오래다.

김주원의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이나 『장미가족의 포토샵 교실』 등 디카족을 위한 포토샵 책들 역시 디지털 문화가 낳은 형제들이다. 디카도 있고, 사진 활용술 책도 샀고, 사진 수정을 위해 포토샵까지 공부한 독자들이라면 이제 할 일은 내용을 채우는 일이다. 수평선이 보이지 않는 블로그의 바다가 바로 그들의 작업터이다. 이들의 작업이 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정체성을 규정짓기 모호한 책들이다. 사진이 중심이 된 책이지만 대부분 직업 사진작가가 아닌 아마추어의 작품이며, 사진집은 아니다. 그렇다고 포토 에세이라고 부르기에는 글의 비중이 너무 작다. 공통점이라면 대부분 자신의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 안에서 연재하던 글과 사진을 묶었다는 것. 내용에서 글보다 이미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이다. 글로 말하기보다는 사진으로 말하기를 즐겨하는 책이라고나 할까.



윤광준의 『잘 찍은 사진 한 장』 외 소개도서들

2003년 출간된 『파리의 보물창고』는 파리에 유학중인 이경인, 박은희 부부가 홈페이지에 글과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한 파리 생활을 책으로 만든 경우다. 과거의 유학 경험담을 묶는 방식과는 다르게 책에서는 주로 파리의 뒷골목 이야기만 한다. 유명 여행지보다는 파리의 뒷골목에서 자신들이 만난 카페, 상점, 음식점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담았는데 혼란스럽다 싶을 정도로 사진정보가 많은 일종의 사진여행기다.

2005년 출간된 권윤주의 『to cats』 역시 특이한 책이다. 스노우캣으로 유명해진 일러스트레이터 권윤주가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 나옹에게 바치는 책이다. 작가가 4년 동안 길러왔다는 고양이 나옹의 모습을 찍고 그렸다. 역시 홈페이지에 올렸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진 경우다. 책을 통해 고양이에 대한 작가의 절대적 애정

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 좀 놀랐지만, 시시콜콜한 애정을 글로 표현하지 않고 위풍당당 혹은 귀엽고 깜찍한 고양이 사진으로 풀어낸 것도 놀랐다. 뭐 이런 책도 팔리는구나 싶은 심정이랄까.

디자이너 박우혁의 『스위스 디자인 여행』 또한 이채롭기는 매한가지다. 『시월애』 『파이란』 『생활의 발견』 『오아시스』 『나쁜 남자』 『봄날의 꿈을 좋아하세요?』 등의 감각적이고 참신한 영화의 로고타입으로 이름을 떨치던 디자이너 박우혁이 스위스로 공부를 하러 떠난 2년 간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에 담겼다. 셋노란 표지부터가 너무나 디자인적인 이 책 역시 저자가 스스로 찍었을 수많은 사진으로 이어져있다. 글로 접할 수 있는 정보란 별로 없다. 이미지적인 너무나 이미지적인 책이다.

### 감각의 변화

15세기 인쇄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책이란 소수의 특권계층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향유였다. 읽을 수 있는 책이란 한정되어 있으니 책이란 소리내어 읽고 공유하는 매체였고 책읽기란 음독을 말했다. 따라서 중세까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란 청각-촉각-시각 순이었다. 심지어 중세인 들은 시각에 대한 근원적 불신감까지 지니고 있었다. 17세기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문학적 발견을 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종교재판까지 회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릴레이의 망원경이 보여준 시각이 촉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불신감 또한 당대인들과 불화를 재촉한 원인이다.

이렇듯 청각과 촉각을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의 감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15세기 들어 활판인쇄가 등장하고 원근법이 확립되고 현미경과 망원경이 발견되며 서서히 인간의 감각에 변화가 일어난다. 망원경과 현미경 그리고

카메라의 연이은 등장은 인간의 감각구조에서 시각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했다. 인간에게 우주적 시야를 제공한 망원경, 내면을 향한 미시적 시야를 만들어준 현미경에 이어 인간의 시각을 확장시킨 건 카메라의 눈이다.

인간의 시야로는 가능하지 않은 시점들이 카메라의 눈을 통해 보여진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 쇼트라든가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 쇼트 등은 모두 인간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각도가 아니다. 카메라를 통해 가능해진 시야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지각이 변하면서 시각의 감각비율도 달라졌다. 반면 과거에는 인간이 스스로 하던 일을 이제는 기계나 도구를 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촉각은 갈수록 무더진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처럼 시각은 계속 확장되고 촉각은 점차 후퇴한다.

19세기에 등장한 카메라는 인간의 감각뿐만 아니라 당대인들의 사고나 창작에 미친 영향 또한 엄청나다. 카메라 옵스큐라나 카메라 루시다로 대상을 객관화하고 정확한 묘사를 시도했던 화가들은 사진의 등장으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이상 회화가 재현에 있어서 사진을 당해낼 수 없게되자 회화는 추상의 길을 걷게 되었다. 현대미술의 시작이다. 또 사진은 지금,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무엇이라는 오리지널, 진품이라는 개념마저도 지워버렸다. 사진과 영화가 등장하자 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쓰게 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촉각과 청각에서 시각으로 발달해간 인간의 감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자면 인간 역사에서 시각이 오늘날 처럼 전면화된 것은 사진, 영화, 텔레비전이 등장한 최근의 일이다. 재미난 것은 갈수록 시각화되는 지금, 여기저기서 촉각과 청각 등의 감각이 재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이 시각과 더불어 촉각과

인간 감각의 역사가 말해주듯 감각의 변화는 문화와 창작의 필연적 변화를 가져온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과 소리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미디어와는 다르게 종이 위에 인쇄된 책 역시 어제의 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디지털이 만들어낸 새로운 감각을 책 역시 나름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청각을 다시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중권은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에서 디지털의 특징을 비선형, 순환성, 파편성, 중의성, 동감각, 형상문자, 단자론으로 규정지었는데, 디지털의 특징 중 하나가 동감각 즉 공감각화이다. 디지털 미디어는 만지고 보고 듣는 멀티미디어적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 감각의 역사가 말해주듯 감각의 변화는 문화와 창작의 필연적 변화를 가져온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과 소리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미디어와는 다르게 종이 위에 인쇄된 책 역시 어제의 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디지털이 만들어낸 새로운 감각을 책 역시 나름대로 실현하는 것이다(북디자이너 정병규 선생은 이를 두고 디지털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책의 등장이라고 말한다). 가장 비근하게 살필 수 있는 점이라면 책의 이미지가 풍부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영상세대 독자를 위한 유인책이라는 표면적 이유와 디지털 감각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기도 하다. 책 속에 담긴 문자에는 억양, 제스처,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들이 사라지게 마련인데 이미지를 통해 사라진 감각을 복원할 수 있다. 고양이 나옹의 ‘야옹’ 소리와 위풍당당한 몸짓은 글이 아니라 한 컷의 사진으로 청각적으로 혹은 촉각적으로 복원되는 것이다.

근래 들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미지가 담긴 책들은 감각의 복원을 외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가 하는 역할은 삽화의 기능만이 아니라 텍스트와 같이, 혹은 따로 말하기를 시도하는 이미지일 것이다. 현대 사진이 하나의 장르로 독립하기 위해 버린 ‘이야기성’이 책을 통해 살아난다고나 할까. 본다는 것이 단지 눈으로 본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의 전반에 의해 형성되는 감각인 것처럼 디지털 시대의 책 역시 자신의 ‘물질성’ 안에서 새롭게 소리 지르고 달려들고 있는 중이다.